

교원의 교과서 개발 활용 역량강화

- 교과서 편집 디자인 -



LESSON 1. 우리나라 교과서와 외국 교과서 디자인 비교

LESSON 2. 학습 효과를 높이는 교과서 편집 디자인

1 우리나라 교과서와 외국 교과서 디자인 비교

1. 우리나라 교과서와 외국 교과서의 표지 디자인 비교

<p>프랑스 역사-지리-시민교육 교과서 표지</p>	<p>프랑스 물리화학 교과서 표지</p>	<p>영국 물리 과학 교과서 표지</p>
<p>2009 개정교육과정, 검정 교과서</p>	<p>2015 개정교육과정, 검정교과서</p>	<p><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인정교과서</p>

1) 프랑스 교과서와 우리나라 교과서 표지

교과서 개발은 내용 체제와 외형 체제를 완성시키는 과정인데, 통상 개발 기간 중 대부분의 시간은 원고 집필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집필진의 집필 의도와 교과 내용의 집필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 외형 체제가 구현되지요. 결국은 교과 내용과 동떨어진 질 낮은 디자인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필 구성 시기와 디자인 개발 시기가 적절하게 맞물리도록 통합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편집 및 집필 의도를 이해하고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내용 체제 구성과 외형체제 과정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제작비와 시간 절감, 질 높은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중심으로 교과서 개발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 전문가로 현장중심, 시대변화에 맞춰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데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은 '읽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지요. 디자인도 교과서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집필진들이 직접 집필내용을 학생들과 실천한 사진, 삽화 등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에서의 교과서 위상은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수·학습자료 중 하나로 인식하고, 교과서 내용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나라에서의 교과서 위상은 학교교육에서 절대적인 존재이지요. 표지 디자인의 경우, 같은 점은 해당 교과목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외국 교과서의 표지 디자인은 우리나라에 비해 심사대상에서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외형체제의 비규격화, 디자인의 다양성이 돋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지디자인은 교과서의 얼굴이며, 교과서 채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교과목의 의미가 담긴 창의적이고 추상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우리나라 교과서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으로는 국가교육과정의 각론에 의거하여 집필세목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내용체제가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합니다. 집필자·편집자·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외형체제 및 내용체제에 있어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인정 기준을 정하여 주기 때문에 혼선이 덜합니다.

하지만 동일교과목의 교과서들의 집필세목이 거의 획일적이며, 지식과 기능 중심이 주류를 이루다보니, 정의적 영역, 사회참여, 통합·융합영역등이 부족한 편입니다.

2022개정을 앞두고 인정 교과서의 증가, 자유발행제 등으로 교과서에 대한 자유로운 출판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준비하는 교사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디자인에서 좋은 인상을 주고 선점하려면 표지 디자인에 있어서 교과목의 특성을 살리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회현상(문제)이나 미래사회를 반영한 디자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나라 교과서와 외국 교과서의 내지 디자인 비교

1) 프랑스와 우리나라 지리교육 교과서의 내지 디자인 차이점

내지(내용) 디자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 나누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교과서에 비해 단 나누기로 교과서 디자인이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 교과서는 다단나누기로 하다 보니 내용이 다양함을 볼 수 있지요. 교과용 지도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림삽입 및 보충설명이 충분히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색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비해 원색과 자극적인 색상이 많습니다.

2) 두 나라의 교과서 디자인을 비교하여 느낌을 나누어 보자

우리의 교과서는 지금도 여전히 지식·기능 중심의 내용이 많다 보니 디자인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현상, 사회참여 등을 반영하는 사진·그림이나 도표 등으로 학생들의 자기 생각을 이끌어 내는 교과서였으면 바랍니다.

3. 교과서의 편집과 디자인의 차이

일반적으로 편집이란 일정한 계획 아래 여러 가지 재료를 모아 엮어서 책이나 신문, 잡지 따위를 만드는 일을 말하고 신문, 잡지, 서적 등의 제작 과정에서는 원고 정리, 제목 작성, 지면 구성 따위의 일을 말하며,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는 녹화나 촬영한 필름을 잘라내어 재구성하는 것 따위를 편집한다고 말합니다.

디자인은 신문·잡지·서적 따위의 지면을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일. 내용을 고려한 지면의 구성, 활자, 사진·일러스트레이션 따위의 콘텐츠 생성과 편집 및 배치, 인쇄·제본에 이르는 총체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근래에 와서 '편집'과 '디자인'을 따로 구분하기도 하고 '편집 디자인' 이라고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여 혼용하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 속표지를 보면 교과서 개발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쭉 나오고 5개 분야에 걸쳐 편집, 아트 디렉터, 표지 디자인, 본문 디자인, 삽화·컷으로 분류하여 참여자를 기록했는데 갈수록 합쳐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2007, 2009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맨 뒷면을 보면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지적했듯이 5개 분야로 세분화하였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3개 부분으로 나누어 편집, 디자인, 일러스트·삽화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차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사고와 기능을 요구하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 모 출판사의 북 디자이너는 그 두꺼운 책의 편집 디자인을 보름 만에 끝냈다.”

이때 북 디자이너는 편집 디자인을 함께 하는 전문가로 이해하셨나요? 표지, 내지, 구성, 위치, 크기, 글씨체, 색상 등 책의 모든 부분을 뜻하는 복합적 의미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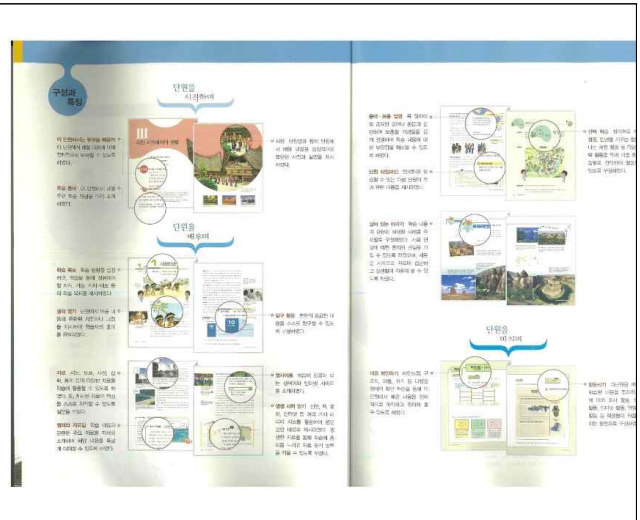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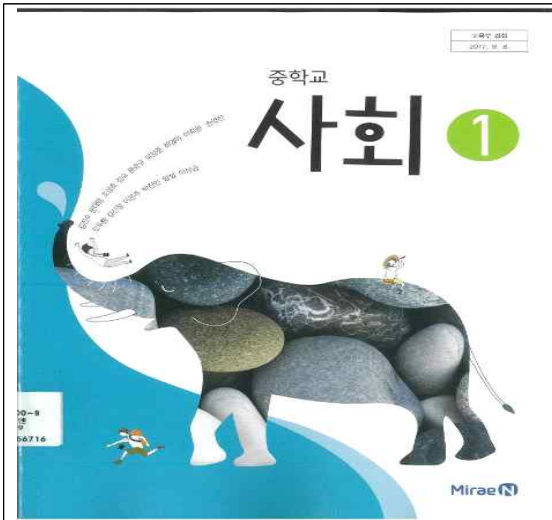
“편집 내용은 무시하고 겉 포장으로서 디자인만 잘하면 잡지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도 있다.”

이때 '편집'은 내용의 구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겉 포장으로서 디자인'은 그야말로 시각적 효과에 신경을 쓴 것으로 분리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2 학습 효과를 높이는 교과서 편집 디자인

교과서는 사실 지식부문, 즉 내용체계가 90%에 가깝지만 그것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겉표지(앞) → 속표지 → 머리말 → 차례 → 교과서 구성과 특징 → 단원 표지 → 내용 구성 → 답안 길잡이 → 찾아 보기 → 인용·참고 자료 → 집필진·검토진 등 → 겉표지(뒤)로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예로 교과서의 대부분을 이루는 내용 구성의 특징(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중학교 인정도서, 2015년 개정판 기준)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자면

- 1) 단원 도입
똑똑(문제 제시) → 바탕글 → 생각나침반
- 2) 본문 전개
시민의 눈, 세상 속으로(자료와 활동 제시 → 내 생각 펼치기)
- 3) 생각에 날개 달기(학생활동 제시)
- 4) 생각은 깊게, 꿈은 크게(정보제공 : 도서, 영상, 사이트, 직업이나 단체)
- 5) 아름다운 참여, 세계의 시민(대단원 내용과 관련된 인물 소개)을 소개합니다.

12개 단원이 이러한 구성과 특징을 따르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대표적인 인정교과서로 전국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구성과 특징에 있어서의 편집 디자인 개발의 과정들은 편찬 방향, 집필 세목에 대한 시각화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있으며, 삽화, 사진 제작을 통해 학습내용을 보다 흥미롭게 구성함으로써 원고본을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다시 말해 집필진에 의해 문자로 쓰여진 교과 내용을 비언어적 요소인 그림과 사진을 통해 학습자가 학습 내용에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외형체제 프로세스(편찬 방향에 따른 콘셉트 및 포켓디자인, 편찬 방향 및 콘셉트에 의한 시각 요소 제작, 콘셉트 및 포맷에 의한 본문 페이지 레이아웃 등)은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이지요.

이제 시대의 흐름은 '읽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지요. 이는 단순히 '글자는 읽고 그림은 본다'는 소극적이고 전통적인 기능에서 탈피하여 '글자 보기, 이미지 읽기'의 지식 정보화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요. 교육과정과 내용체제만 가지고 교육내용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시대는 구시대적인 발상이지요. 따라서 내용 체제 전문가와 외형체제 전문가의 상호협력체제에 의하여 최적의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으로 기술되어야 질 좋고 만족도 높은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습효과를 높이는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 1)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 시키고 보는 즐거움을 적절히 제공하여 학습 내용의 전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각화와 표현 전략을 유도하여 교과 내용을 깊이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 2) 교육내용에 적절한 과학적이고 기능적인 타이포그래피의 선택과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연령과 트렌드에 적합한 표현 방법을 통하여 교과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 3) 예술적 감각과 창조력을 통하여 교과목의 개성적인 표현 전략을 설정하고 컨셉트를 가시화하여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표현함과 동시에 창의적인 포맷디자인과 변화무쌍한 레이아웃을 통해서 교과목의 일관된 정체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4) 교과서는 내용적인 면에서 시대적 변화에 매우 민첩하게 대처하고 있듯이 시각적, 심미적 기능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과 내용을 차별화된 이미지로 각인시켜 줍니다.

- 5) 편집자와 디자이너는 집필자와 교과 내용의 표현 전략을 설정하고 이들을 조정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최종 목적에 도달하여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감동적인 교과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 6) 읽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의 변화로 교과서가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내용을 단순화, 순서화 한 것이라면, 교과서의 편집 디자인은 학습자인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보는 즐거움을 적절히 제공하여 교과내용으로 전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표현 전략이 필요하지요.

이와 같이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질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내용 체제 편찬과정인 집필진·연구진 구성 시기에 외형체제 개발의 세부계획이 집필과 동시에 디자인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인 수반되어야만 교과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다.